

세 개의 장애물

- 주제 탐색, 참고문헌 선택, 집필 및 퇴고의 기본 전략 -

| 최 은 광 (인문대학 미학과)

이 글에서 나는 글쓰기의 세 단계인 주제 선정, 문현 독해, 집필 및 퇴고에 대해 설명합니다. 학생으로서 글을 쓰고자 할 때 이 세 가지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때로 이들 단계가 글을 쓰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기보다 오히려 일종의 장벽처럼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장벽은 꽤 공고한 편이어서 극복해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는 글쓰기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중도에 멈춰버린 채 지체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써야 할 글이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험은 괴로우며,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학생들 역시 이미 어느 정도 이러한 두려움과 마주해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작업의 어려움을 표현하기 위해 ‘장애물’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아닙니다. 장애물이란 진로를 방해하는 대상이라는 뜻을 갖지만 반드시 넘어서야만 하는 대상이라는 뜻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글에서 글 쓰는 과정의 장애물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장애물은 글쓰기 작업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글 쓰는 사람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함께 지적합니다. 나는 여기서 이미 글을 여러 번 써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 단계의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어떤 학생을 상상합니다. 이런 학생은 어쩌면 글을 다루는 잘못된 방법에 익숙해져 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좋지 못한 글쓰기 습관은 곧 글 쓰는 과정을 장애물로 여기도록 만듭니다. 이는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중 일부가 기술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글쓰기의 세 단계, 혹은 세 개의 장애물에 대한 나의 이야기는, 많은 부분 글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피해가거나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나는 하나의 글을 쓰는 과정을 순서대로 추적하되, 이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비교적 세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 글이

결론에 이를 때까지 나는 세 개의 장애물이란 결국 글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백히 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서너 번 정도 교양 강좌 보고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고, 이제 막 전공 보고서를 준비하려 하는 단계의 학생을 이상적인 독자로 가정합니다. 개별 전공에는 그에 알맞은, 혹은 특화된 보고서 작성 요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최대한 이러한 특수성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글쓰기 요령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전공인 미학과 철학이 글의 방향을 이끌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1. 무엇을 쓸 것인가: 주제 선정

주제를 정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통상 학생들이 보다 독창적일수록 더 좋은 주제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주제를 찾을 수 있다면 그만큼 글쓰기에 유리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전공 보고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화된 내용을 다루기 어려운 교양 강의 보고서를 쓸 때는 글쓰기 자체보다 주제를 설정하는 일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참신한 주제는 상대적으로 글을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전공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보다 재치 있는 주제를 발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부하고 안전하여 마치 관용구처럼 보이는 주제보다는 조금 도발적이더라도 기지 넘치는 주제가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독창적인 주제를 찾는 데 실패한다면 이미 알려져 있거나 평범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술적인 글쓰기에서 잘 알려진 주제를 사용하는 일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주제로 글을 쓰되 그 주제를 확실히 심도 있게 다룬다면 썩 훌륭하지는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괜찮은 보고서를 완성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보고서는 대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얼마나 잘 소화해 내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립니다. 이를 편의상 ‘요약 보고서’로 부르겠습니다. 요약 보고서 작업에는 경우에 따라 외국어로 쓰인 책을 포함하여 여러 문헌을 읽고 잘 이해하여 요약하는 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참신한 주제를 찾는 어려움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 시도해볼 만합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하다는 것일 뿐, 결코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더구나

내가 여기서 독자로 가정하는 학생들에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글은 때때로 학생들을 그릇된 길로 접어들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예컨대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려는 학생들은 방대한 내용이 곧 좋은 글을 담보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습득한 지식을 과시하는 데 그치는 글은 요약 보고서로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말에 억양이 있듯이 참고 자료에도 강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게 부각시켜야 할 자료가 있는 반면, 어떤 자료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덜합니다. 한데 자료의 중요도란 참고 자료 자체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에 따라 중요한 자료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학부 과정은 글 쓰는 데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문제는 학부 초년생이 이를 실전에 활용할 만큼 익숙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이 요약 보고서를 쓰게 된다면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글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요약 보고서를 쓰는 대신 독창적인 주제를 찾아내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란 좋은 글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독창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전공 과정에서의 요약 보고서는 대개 필수적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글은 실격으로 간주됩니다. 다시 말해 글의 주제가 평범하다면 다른 부분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평범한 주제는 색다른 주제문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주제도 주제문도 평범하다면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을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주제문과 문제 접근 방식은 주제 못지않게 글쓴이의 독창적인 견해를 대변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들 둘에 독창적으로 접근하는 일이 독창적인 주제를 찾아내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주제 역시 쉽사리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일단 주제가 결정되면 그만큼 글쓰기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제문과 문제 접근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글쓰기의 독창성이 충분한 독서를 바탕으로 할 때 보다 잘 담보된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적어도 해당 주제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만큼은 갖추어야 합니다. 주제문에 대한 다음 설명을 통해 이 점을 예증하겠습니다. 주제문은 주제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을 담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한 예로 “오타쿠 문화의 기원”이라는 주제를 이용하여 “오타쿠 문화의 기원은 일본 전통 문화에 있다.”라는 주제문을 만들었다고 합시

다. 일반적으로는 오타쿠 문화를 일본의 전후 베이비붐으로 인한 일시적인 시대적 산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앞서와 같은 주제문은 나름대로 독특한 시각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타쿠 문화에 대한 통상적인 해석을 모른다면 이를 보고 새롭다는 점을 짐작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러한 주제문을 직접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용어는 애매할 수도 있지만 석·박사 학위 논문을 포함하여 관련 주제의 논문을 읽어 보면 대개의 경우 그 흐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도 영유권 귀속”이라는 주제로 “독도의 영유권은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주제문을 만들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주제도 주제문도 극히 평범합니다. 이미 언급했듯 평범한 주제 및 주제문으로 좋은 글을 써내기 위해서는 주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참신한 시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방대하게 이루어져 왔고 그간의 연구 업적을 모두 나열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의 내용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으로도 기존 연구에 대해 미리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견해를 구축하는 점이 주제를 선정할 때나 주제문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보고서를 쓸 때마다 거대한 이론을 새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시각에 대하여 아주 작은 반란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보고서에서는 훌륭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 관점을 지지하되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더라도 자신의 고유한 견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글쓰기에서 독창적인 주제가 중요함을 언급하고 이 독창성이 지식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독창적인 주제를 만들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단기적인 방법과 중장기적인 방법을 구분하겠습니다. 전자는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이 생소하여 짧은 시간 안에 내용 파악과 주제 설정을 동시에 해야만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후자는 보다 좋은 주제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에 실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 독창적인 주제를 찾는 데는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단기간에 글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전을 활용

하여 전반적인 지식부터 갖추기를 권합니다. 사전이란 글을 읽을 때는 널리 이용되지만 글을 쓸 때는 의외로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은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 그리 깊지는 않더라도 체계적인 지식을 구축하도록 도와줍니다. 국어사전 혹은 외국어사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위키 사전 등이 일반적으로 내가 참고하는 사전류입니다. 이외에도 주제에 따라 다양한 사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위키 사전은 간혹 주관적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학술 문헌으로서는 아직 공신력을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런 점이 오히려 주제를 설정할 때는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독특한 시각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주제어를 중심으로 웹 서핑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만, 이 방법은 남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자료가 풍부하지만 그만큼 믿지 못할 자료도 많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사전이나 인터넷을 통한 주제어 탐색은 광범위한 주제를 좁혀 나가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제가 될 만한 내용을 평소 기록해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을 검토해 보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 충분히 여유를 갖고 곱씹어볼 때 비로소 좋은 주제를 구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이 가는 내용을 갈무리하는 습관은 지식을 되새김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록했던 내용을 이용하여 글을 써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으면서 의문이 떠오를 때 간단히 적어 두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나중에 메모한 내용을 다시 대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이 중 몇몇 문제는 계속 뇌리에 남아 고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침실에서, 혹은 샤워를 하거나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 고민을 즐기다 보면, 단순한 의문점에 불과하던 것이 글을 써도 될 만큼 좋은 주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고민을 지식이라는 단지 속에서 긴 시간 동안 충분히 숙성 시킬 때, 종종 이 고민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글의 개요가 될 정도로 체계가 잡히기도 합니다.

2. 무엇을 읽을 것인가: 참고 문헌

대부분의 글쓰기 안내서들이 그러하듯이, 이 글에서도 ‘주제 선정’ 장 이후에 ‘참

고 문헌'장을 배치했습니다. 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제 결정 뒤에 문헌 독해가 오는 이런 순서는 아마도 실제로 글을 써나가는 과정을 고려한 결과일 것입니다. 글 쓰는 과정을 순서도상의 흐름만으로 이해한다면 주제를 결정한 뒤 그 주제에 맞는 문헌을 읽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앞 장에서 설명했듯 주제는 선행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이 지식은 대개의 경우 참고 문헌을 통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글쓰기의 전체 과정을 고려할 때 오히려 문헌 독해가 주제 선정에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이조차도 옳은 말이 아닙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대화를 하는 것과도 같아서, 한 문헌을 기초로 주제나 입장을 정한 글쓴이가 다른 문헌에 설득당하여 이미 정한 주제를 크게 혹은 작게 변경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비단 문헌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글을 직접 쓰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글의 주제와 방향, 내용은 한 번에 확고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글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문헌 독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글쓰기의 과정을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제를 설정하고, 주제에 맞게 참고 문헌을 읽고, 읽은 내용을 조리 있게 구성하여 개요를 짜야한다는 식의 생각, 그리고 한 번 지나온 과정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강박관념이 강할수록 글을 쓰기는 어려워집니다. 실제 글을 쓰는 과정은 도식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입체적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반드시 주제를 선정한 이후의 과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글을 쓸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개중에는 문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면상 모든 자료를 다룰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문헌의 범위를 1차 문헌 및 서적 형태의 2차 문헌, 그리고 논문으로 한정하겠습니다. 1차 문헌은 고전, 강의의 주교재, 혹은 연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문헌을 말합니다. 2차 문헌은 1차 문헌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문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말하는 논문이란 석·박사 학위 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모두 의미합니다. 나는 우선 문헌을 읽는 순서와 그 이유를 열거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참고 문헌 검색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읽은 문헌을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글을 쓰기 위해 독서를 할 때 무엇보다 위험한 습관은 1차 문헌을 무시한 채 바

로 2차 문헌부터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은 1차 문헌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편견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서 방법으로는 읽는 것 이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글에 대해 편견을 갖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2차 문헌은 1차 문헌에 대한 일종의 해설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해설이라도 1차 문헌에 대한 정답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문헌을 읽지 않은 채 2차 문헌을 먼저 읽으면 마치 후자가 전자를 해석한 정본(正本)처럼 여겨지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보를 습득하는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2차 문헌 역시 한 권 이상의 책이기 때문에 분량이 많습니다. 게다가 1차 문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읽기 쉬울 뿐 내용이 어렵다는 점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2차 문헌 한두 권을 읽는 동안 주어진 시간을 다 소비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집필할 여유가 사라지게 되면 최종적인 글의 질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1차 문헌을 직접 읽는 일은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1차 문헌 그 자체의 내용보다 다른 요인이 독해를 어렵게 만듭니다.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번역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번역문이 원문의 표현을 손실 없이 옮겨내기는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학계에서, 혹은 그 분야의 선생님들께서 추천하는 번역서를 확보하되, 가능하면 해당 언어로 쓰인 글을 직접 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종종 지나치게 어려운 2차 문헌이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2차 문헌은 해당 주제의 초심자에게 어떠한 배려도 해 주지 않고 바로 전문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1차 문헌보다 어려울 수 있으며, 1차 문헌에 대해 막연한 공포를 일으킵니다. 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권위에 약한 학생들의 태도입니다. 물론 2차 문헌을 쓰신 분들의 연구 업적에는 적절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 2차 문헌은 1차 문헌에 대한 하나의 해석일 뿐 정본은 아닙니다. 2차 문헌의 권위에 지나치게 경도되면 1차 문헌과 직접 소통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1차 문헌을 읽은 뒤에는 학위논문을 읽을 것을 권합니다. 보고서 과제에서 1차 문헌 독해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거나, 1차 문헌을 읽고 싶지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경우에도 학위논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논문 끝부분에 정리된 참고문헌목록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읽을 1차 문헌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은 전공자를 독자로 가정하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학위논문은 가급적 해당 주제에 대한 최신의 논쟁을 다루면서도 비교적 다가서기 쉬운 내용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전개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특히 학부생에게는 박사논문보다 석사논문이 많은 도움을 줍니다. 박사논문은 글의 구조나 논변 전개 과정이 보다 정치할 수는 있지만, 양이 방대하고 내용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기 때문에 보통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위논문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인터넷을 이용해 다른 대학의 학위논문도 어렵지 않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것을 중심으로 읽어가면 될 것입니다.

1차 문헌과 학위논문까지 읽었다면 학술지 논문 및 2차 문헌으로 넘어갑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국내 및 해외논문까지 많은 양의 논문이 검색되므로 초록과 목차를 보고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읽도록 합니다. 논문의 경우 중앙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통하여거나, 중앙도서관 계정을 이용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으로 접속한 다음 논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보원에 따라서는 간혹 일부 논문의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상 중앙도서관 계정을 갖고 있으면 또 다른 경로를 통하여 논문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에 접근하는 다양한 경로를 미리 연습해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인터넷이 불편하다면 중앙도서관의 정기간행물실에서 책자로 된 학술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훨씬 다양한 자료를 더 손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활용법을 익히기를 권합니다. 중앙도서관에서 데이터베이스 활용 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 정규학기마다 개설되는 ‘도서관정보검색’ 강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글을 쓰기 위한 독서는 가급적 두 번 이상 반복할 것을 권장합니다. 논문의 전체 내용을 요약할 필요가 없을 경우, 나는 일반적으로 글에 필요한 내용을 찾아간다는 기분으로 독서합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읽어 가면서 글의 주제에 적절한 참고 문헌인지 확인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책갈피 등으로 표시를 해둡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정독하되, 글을 쓸 때 필요한 부분을 보다 확실히 간추려냅니다. 논문에서 직접 인용할 내용은 미리 메모를 해둡니다. 이후 몇몇 부분을 필요에 따라 반복해서 읽고 이해합니다. 만약 특정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 요약하는 작업에 보다 공을 들입니다. 특히 서평을 쓸 때에는 요약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문헌을 두 번 이상 읽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때에 따라서는 불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독서하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읽어 낸 문헌이 많아질수록 새로운 정보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단순히 책갈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만 관리하다보면 나중에는 자신이 쌓아둔 정보를 적절히 통제하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참고 문헌으로 세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시다. 각 책에는 중요도에 따라 표시해 둔 책갈피가 잔뜩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글을 쓴다면 책갈피를 일일이 찾아가면서 집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책이 세 권 정도만 되어도 이미 표시한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있기란 불가능합니다. 참고문헌의 양이 더 늘어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참고 할만한 내용을 발견하고도 정작 글쓰기에는 반영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이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 책갈피로 표시한 내용을 다시 찾으면서 원저의 내용을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메모를 병행하되 미리 체계를 만들어 두기를 권합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가고 장기간에 걸쳐 독서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점점 유용해집니다. 한 예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위계에 따라 몇 개의 키워드를 조직화하고 이 키워드 아래에 여러 책의 해당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책 제목과 면수를 함께 기입하여 차후 각주를 달 필요가 있는 경우 활용하도록 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 불필요하게 다시 책을 찾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정리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면 원문의 내용과 키워드, 서지사항을 한 번에 오갈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군 – 2003 이상 – 에 포함된 “원노트(Onenote)”를 이용해 키워드를 정리하고, 중앙도서관에서 배포하는 “엔드노트(Endnote)”로 서지사항을 정리합니다. 이 밖에도 웹상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몇몇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독서량이 많지 않은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도록 사용하기 바랍니다.

3. 어떻게 쓸 것인가: 집필 및 퇴고

적절한 주제를 중심으로 적당한 양의 참고문헌을 읽는다면 대개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미 대략적인 개요가 도출됩니다. 개요가 완성되면 이를 실제

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 이전에, 문장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의 대처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경우 평소 집필하는 방식을 다른 식으로 바꾸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집필 스타일은 다르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은 한 문장 한 문장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초고를 최대한 최종고에 가깝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글이 이어지지 않을 때는 문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떠오르는 생각을 죽 나열한 뒤 수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봅니다. 또는 컴퓨터로 초고부터 작업하는 대신 종이에 직접 써내려 가보기도 합니다. 사실 어느 쪽이든 최종고를 완성하기까지 실제 집필에 소요되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집필 방식을 변화시켜 봄으로써 다음 문장을 떠올리지 못해 고민하는 시간만큼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개별 문장을 작성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문장의 흐름이 논리적으로 적절하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특히 ‘그러므로’, ‘따라서’와 같이 결론을 도출하는 접속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런 종류의 접속사는 자신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할 때 더욱 과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가)에서 논리적으로 (나)가 도출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속사를 이용하여 “(가)이다. 그러므로 (나)이다.”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때 일어납니다. 이렇게 구성한 문장의 허점은 대략 두 방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 문장이 본질적으로 (나)의 전제 혹은 근거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를 (나)의 대전제로 삼을 수는 있지만 (가)와 (나) 사이에 다른 소전제를, 혹은 교량 역할을 하는 문장을 삽입해 주어야만 하는 경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가)는 글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거 없이 (나)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글이 되는 것이지요.

문장뿐만 아니라 문단, 나아가 장절 간의 연결 관계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문단의 중심 문장만을 추출하여 이 문장들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앞문단의 마지막 문장과 뒷문단의 첫 문장을 서로 맞추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단 간의 구조를 살필 때 주의해야 할 접속사는 ‘그런데’와 같은 애매한 접속사와 ‘한편’과 같이 내용을 전환하는 접속사입니다. 예컨대 구어체에서 ‘그런데’는 ‘그러나’처럼 단순히 역접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전체 흐름과 무관한 내용을 도입하

글로 옮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데 학생들이 종종 문장을 써내려가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단순히 개요만으로 글을 쓰려 하기 때문이거나 준비된 개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선 개요에 대한 이 두 가지 실수를 지적하겠습니다.

개요만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주제에 대한 준비 없이, 다시 말해 참고문헌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전 지식만으로 집필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시간에 쫓기는 학생들이 논술고사를 치르듯 한 번에 글을 작성하고 그 이후 글에 부합하는 참고문헌을 찾아 역으로 퍼즐처럼 맞추어 넣는 광경을 목격하곤 합니다. 이런 식의 사례는 극단적인 노력 부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므로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계으름의 소치가 아니라, 개인의 고유한 글쓰기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방식의 글쓰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학술적 글쓰기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 학습의 한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고 있을 때의 주장은 반드시 글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지 않고 문헌을 반성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준비된 개요가 없다는 것은, 주제와 문헌에 대한 검토는 되어 있지만 개요를 체계화하지 않고 대략적인 목표만으로 글을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글의 큰 흐름, 즉 각 장의 내용과 주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아 놓은 자료 역시 풍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이 조금씩 어긋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란 강물처럼 흘러가 버리고 파도처럼 요동치기 때문에, 개요가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글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명문화된 개요는 중간에 길을 약간 벗어나더라도 곧 큰 길을 찾아 되돌아오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글이 몇 개의 논변을 담고 있거나 하부 구조를 포함하여 복잡한 구조로 전개된다면 반드시 개요를 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력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실제 글을 쓰는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필 과정에서 나는 무엇보다 논리성을 강조합니다. 문장력이 필요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장 만들기는 약간의 연습을 통해 충분히 익힐 수 있는 반면, 논리적으로 글을 구성하는 능력은 스스로 끊임없이 반성하지 않는 한 고양되

는 데도 사용됩니다. 구어적 용법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 ‘그런데’를 글에 사용하면서 불필요한 내용을 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어체 어휘를 글에서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 방법도 고육지책으로 사용해볼 만합니다. ‘한편’ 등의 접속사로 내용을 전환할 때도 논리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글이 전환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글을 완성한 뒤 검토를 할 때에는 직접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는 방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아서는 잘못되거나 어색한 문장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내어 읽고 귀로 문장을 들어보면 의외로 어색한 부분이 보다 쉽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스스로 글을 다듬는 과정에서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 가지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글을 보이고 검토 받는 것이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첨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고 과정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수준이 비슷한 친구들에게는 문장이 쉽게 읽히는지, 혹은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님이나 조교들로부터는 논변의 정합성을 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글쓰기교실을 적극 이용하여 주제 설정부터 실제 집필 까지 글쓰기에 대한 내용 전반을 검토 받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글쓰기의 원칙과 요령은 글을 쉽게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지난 몇 년간 내 눈 앞에 있었던 많은 장애물이 이러한 원칙을 익히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것만으로 글쓰기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글을 쓰면서 때때로 장벽에 가로막히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되돌아보면 이런 장벽은 글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벽은 글의 주제나 참고문헌이 어렵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도 아니었고, 써야 할 글의 분량이 많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를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면 어김없이 세 개의 장애물이 나타나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이 글 전체를 통해 학생들이 글을 쓰는 과정의 어느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지, 혹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의 뜻입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와 같습니다. 겁먹지 말고 균형을 잡으라고 열심히 충고해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두려움을 떨쳐 내는 일은, 그리고 균형을 잡는 일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부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